

‘語助詞’의 정의와 문법적 의미범주에 관한 小考

— 2009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鄭 順 泳 *

<目 次>

- | | |
|----------------------|--------------------------------|
| I. 서론 | III. ‘語助詞’의 정의와 문법적
의미범주 고찰 |
| II. ‘語助詞’의 명칭에 대한 검토 | IV. 결론 및 제언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9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한문지식영역’에서 품사의 하위범주인 ‘語助詞’에 대한 개념설정 문제에 관한 연구다.

2009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의 ‘어조사’에 대한 서술의 실현양상은 ‘介詞’에 비하여 정의와 문법적 의미가 명시적이지 못하며, ‘虛詞’를 지칭하는 ‘어조사’와 품사의 하위분류인 ‘어조사’의 명칭이 상충하는 등 용어에 따른 개념 역시 혼란스럽다. 따라서 ‘語助詞’를 ‘助詞’라 개칭할 것을 제언하고 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고찰하여 학교문법적 측면에서 ‘조사’에 대한 정의와 문법적 의미범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것을 제언한다.

‘助詞’는 단독으로 문장성분을 이룰 수 없고, 단지 단어나 어구 또는 문장의 앞, 가운데나 뒤에 결합하여 어구를 구성하는데 관여하거나 語氣[mood, 심정]의 표현 의도를 나타낸다. 어구를 구성하는 構造助詞는 명사어구화 기능으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며, 語氣助詞는 발어, 제시·정돈, 진술, 의문, 감탄

* 충남대학교 강사 / 7743jsy@hanmail.net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虛詞 중 독립된 品詞라 할 수 있다.

학교문법에 제시된 품사 등 문법용어에 대한 교수·학습적 측면에서의 실현은 어려운 문법용어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어기조사 ‘矣’, 접속사 ‘而’를 ‘어조사 의, ~이다, 진술의 의미를 나타냄’, ‘어조사 이, 그러나, 역접의 의미를 나타냄’과 같은 서술방법을 쓸 것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말을 도와주는 단어’의 의미인 모든 虛詞를 지칭하던 ‘어조사’의 의미를 폐기하는 것 보다는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어조사’를 ‘조사’로 개칭하는 것이 학습에 더 효과적이고 혼란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개별 허사에 대한 학습면에서도 어려운 품사구분을 할 필요 없이 허사의 개념인 ‘어조사’로 제시하는 것이 교수·학습적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조사, 구조조사, 의미범주, 문법 의미, 명사어구화

I. 서론

漢文文法の 효용성은 궁극적으로 한자·한문을 배워야하는 필요성이나 효용성과 직결된다. 우리는 우리의 음성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한자·한문으로 문자 생활을 해왔다. 이러한 우리의 문자생활은 한글이 창제된 후, 한글을 수단으로 하는 문자언어 생활 속에 표의적인 한자·한문의 독음이 그대로 융화되어 현재까지 그 의미를 의식하던지 아니면 모르던지 간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말을 기록하는 한글은 현재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음성언어를 그대로 기록하여 이해가 쉽지만, 의미를 형태로 표현한 한자는 같은 음이라도 서로 다른 다양한 뜻을 지닌 한자가 많아, 한자 어휘의 소리만을 기록하면 이해가 쉽지 않다. 물론 언어는 신생, 성장, 소멸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 자주 쓰는 한자 어휘의 독음은 익숙해서 한글로 써도 문맥상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또 言衆이 어려운 한자 어휘를 쓰지 않거나 그 의미에 해당하는 우리말 어휘로 바꾸어 쓰게 되면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한문을 중요시 하는 이유는 전통이 짧은 나라에 비해 유구한 전통을 가진 민족이라는 自意識과 正體性을 지니게 하며, 선조들이 남긴 많은 자료들을 통해 우리 文化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문과 교육과정¹⁾에서는 교과서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문과는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우리 생활 전반에 면면히 이어 온 전통문화를 바르게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교과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바탕으로 한문교과서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한문 자료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여기서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독해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익히기 위하여 한문문법의 효용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문문장에서 그 의미가 실재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문법의미를 갖는 虛詞에 대한 학교문법적 측면에서의 서술은 명시적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語助詞’는 화자가 자신의 심정 또는 정감의 어기를 어떤 의도로 청자에게 표현하느냐하는 문법성분이다. 예를 들면,

媼曰前遇人乎 曰有一老叟侮予之甚 慍且來矣 (『三國遺事』, 「避隱」)

노파가 묻기를, “좀 전에 사람을 만났습니까?”라고 하니, (연희가) 대답하기를, “한 노인이 있었는데 나를 심히 업신여기기에 기분이 불쾌하여 그만 와 버렸습니다.”라고 하였다.²⁾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1.

위의 예문의 첫 번째 문장은 話者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문장 끝에 ‘乎’를 써서 의문으로 나타내고 있다. 만약 ‘乎’를 생략한 ‘媼曰前遇人’은 ‘전에 사람을 만났다.’라는 진술의 표현이 된다. 두 번째 문장은 동작의 변화나 상황 변화의 의도를 나타내고자 ‘矣’를 써서 표현하고 있다.³⁾ 이와 같이 ‘乎’를 씌므로 해서 청자로 하여금 의문의 표현 의도를 쉽게 인지하게 하고, ‘矣’를 써서 어떤 변화의 상태가 있음을 알게 하여 화자의 표현어기를 명시·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가 자신의 심정이나 정감을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느냐에 대한 의도를 나타내는 허사인 ‘어조사’는 화자의 표현의도를 쉽게 알 수 있는 요소로 의사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의미론적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문법요소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조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어조사’에 대한 연구로는 鄭愚相, 金容傑, 安載澈 등의 연구가 있었는데, 개별 ‘어조사’들을 중심으로 형태·통사적 문법기능과 의미를 중심으로 연구된 것으로 ‘어조사’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와 문법의 미 분류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⁴⁾ 교육과정에서의 ‘어조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어조사(語調詞)는 단어나 어구 또는 문장의 앞, 가운데나 뒤에 와서 문법적인 의미나 어기(語氣)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⁵⁾

-
- 2) 鄭順泳 『『三國遺事』의 虛詞 研究』, 성신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p.224. 재인용.
 - 3) 王力 主編, 『古代漢語』 上冊, 1962, p.232, “‘矣’字是一個表示動態的語氣詞. 它意味着事物的變化和發展. 在一般情況下, ‘矣’字總是把事物發展的現階段作爲新的情況告訴別人.”
 - 4) 安載澈, 「韓國漢文文法研究史」, 『한자한문교육』 16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p.34. 참조.

교육과정에서의 ‘語助詞’에 대한 개념은 ‘介詞’에 비하여 간략하고 명시적이지 못하다.⁶⁾ ‘문법적인 의미’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어기’를 나타내는 하위문법 의미가 진술되지 않아 ‘개사’와 다른 진술 체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어사전이나 한문사전에서 ‘어조사’를 찾아보면, 한자로 ‘語助詞’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은 없고, ‘語助辭’로 나와 있으며 그 의미 또한 모든 虛詞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서술되어 있다.⁷⁾ 그래서 품사의 하위분류인 ‘어조사’와 사전에서 통용하고 있는 모든 虛詞를 지칭하는 ‘어조사’와 명칭이 상충하는 문제가 있다.

한문과 학교문법에서 ‘어조사’의 명칭을 제안한 安載澈 교수의 ‘語助詞’의 개념은 文頭 文中 文末의 語氣助詞 또는 語氣詞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에서 構造助詞로 보고 있는 ‘之’, ‘者’, ‘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개념이다.⁸⁾ 그러나 교육과정에서의 ‘語助詞’는 이러한 語氣詞나 語

- 5)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1, p.14.
- 6) ‘語調詞’라 썼는데 ‘語助詞’의 오기인 듯함. 語調는 ‘말의 가락, 억양을 뜻하는 말’. 2015년 고시된 2015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은 語助詞라 바르게 표기되었으며, 그 개념은 2009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7], p.28. 참조.)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개사’에 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개사(介詞)는 일반적으로 명사나 대명사 등 명사류(名詞類) 앞에 놓여 그 명사류를 서술어와 연결해주면서 처소, 대상, 도구, 시간, 원인, 비교 등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7) 어휘적 성격보다는 문법적 성격이 강한 字들을 상당수 ‘詞’로 풀이 하였으며, ‘辭’도 ‘詞’와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으나 자신의 주장에 수식을 가하여 표현한다는 비언어적학적 뜻이 더욱 강하다. ‘詞’와 ‘辭’는 대상을 명확히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운 문법적 성격이 강한 어휘의 해설에 일찍부터 채용되었다. (金榮九, 「虛詞의 概念的 性格과 그 範圍 - 近代 品詞論을 중심으로」, 『中語中文學』 第8輯, 한국중어중문학회, 1986, p.147.)
- 8) 安載澈, 「漢文 教育에 있어서 品詞 分類 및 用語 問題」, 『漢文教育研究』 제1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6.; 「學校 漢文文法の 品詞 分類와 그 內容에 관한 研究」, 『漢文教育研究』 제17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1.

氣助詞 뿐만 아니라 명사어구화의 결구관계에 관여하는 ‘구조조사’를 포함하고 있어 명칭과 개념상에 문제가 있다.

이로 볼 때, 교육과정의 정의에서 ‘문법적인 의미’가 ‘之’, ‘者’, ‘所’를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라면, 오히려 ‘문법적 기능’이라고 서술되어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에서 품사의 하위분류로서 ‘語助詞’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여 지게 되었으며, 또한 명칭에 따른 그 개념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고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의 ‘語助詞’에 대한 명칭상의 문제점과 서술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어조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고찰하여 한문과 학교문법적 측면에서의 ‘語助詞’에 대한 정의와 문법적 의미범주를 제언하고, 아울러 虛詞에 대한 교수·학습적 측면에서의 적용문제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語助詞’의 명칭에 대한 검토

한문과 중·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서가 발행된 것은 5차 교육과정부터이며,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문법에 관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5차 교육과정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 ‘어조사’의 명칭을 살펴보면, 5차, 6차 7차 교육과정까지는 ‘어기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문말의 어기를 나타내는 것은 ‘종결어기사’로, ‘之’는 ‘주격어기사’, ‘관형격어기사’, ‘목적격어기사’로, ‘者’와 ‘所’는 대명사 등으로 규정하다가 ‘품사’에 대한 내용요소가 교육과정에 기술되기 시작한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이들을 ‘語助詞’라 명칭하게 되었다.⁹⁾ 이번에 고시된 2015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도 ‘語助詞’의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¹⁰⁾

9) 鄭順泳, 「중학교 한문과 “한문지식영역”에서 한문문법의 문제 - 빈어와 보어의 설정문제」, 『漢文教育研究』 第31號,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pp.140-142. 참조.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어조사’의 명칭이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으며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품사의 하위 개념인 한자로 ‘語助詞’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고, 한자로 ‘語助辭’라 하여 그 개념 정의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별 뜻이 없는 말¹¹⁾

한문의 토. 실질적인 뜻이 없고 다만 다른 글자들의 보조로만 쓰임. ‘於, 之, 乎, 也’ 등. 助語, 助字, 助辭.¹²⁾

한문의 토. 실질적인 뜻이 없고 다만 다른 글자들의 보조로만 쓰임. ‘焉, 也, 於, 乎’ 따위. 助語, 助辭¹³⁾

한문의 토. 곧 於, 矣, 焉, 哉 따위. 助辭¹⁴⁾

한문의 토. 아무런 실질적인 뜻이 없이 문장을 이루는 데에 보조 역할만 하는 글자. 곧 ‘於, 矣, 焉, 也, 乎’ 따위. 助語, 助辭, 農者天下之大本也¹⁵⁾

‘語助辭’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한문의 토라 하였으며, 다른 글자를 보조하는 것으로 오늘날 개사, 접속사, 어기사 등의 허사를 예시로 명시하고 있다. ‘한문의 토’라는 것은 우리말의 토에 견주어 말한 것으로 우리말의 조사, 어미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글자를 보조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조사만 따로 풀이하기보다는 다른 글자[실사]

10)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7], p.28. 참조.

11) 李達文 編, 『우리말 뿌리사전』.

12)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2005.

13)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편, 『국어대사전』, 금성, 1991.

14) 한글학회 지음, 『우리말 큰 사전』, 어문각, 1992.

15) 남광우·이용백·이을환, 『한국어대사전』, 玄文社, 1976.

와 함께 문맥적으로 풀이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語助辭의 개념은 한문의 개사·접속사·어기사 등을 포괄하는 虛詞의 개념인 것이다. 『漢韓辭典』에서도 한자로 ‘語助辭’로 기술되어 있으니, 그 내용은 국어사전과 대동소이한데 다음과 같다.

漢文에서 실질적인 뜻 없이 다른 글자의 보조적 구실로만 쓰이는 글자. 어기사(語氣詞). 而, 於, 矣 따위.¹⁶⁾

글자 자체의 뜻은 없으나 뜻이 있는 말의 관계를 맺어 주는 구실을 하는 한자. 而, 於, 矣 따위.¹⁷⁾

『漢韓辭典』에서는 국어사전과 비슷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語助辭를 語氣詞와 유의어로 보고 있으나, 예시는 오늘날 虛詞로 보고 있는 接續詞, 介詞, 문장 끝에 쓰는 語氣詞 등을 예로 들고 있어 虛詞 전체를 지칭하고 있다.

이와 같이 ‘語助辭’의 명칭은 국어사전이나 한한사전에서 모든 虛詞를 지칭하는 단어로 기술되어 있다. 즉 모든 虛詞를 지칭하는 ‘어조사’의 명칭과 교육과정에서의 품사의 하위분류 명칭인 ‘어조사’는 명칭은 같으나, 그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사전의 설명은 그대로 반영되어, 허사에 해당하는 한자의 뜻과 음의 제시도 ‘而’는 ‘어조사 이’, ‘於’도 ‘어조사 어’, ‘矣’도 ‘어조사 의’ 등으로 기술되어 있는 듯하다. 여기서의 어조사는 한자로 ‘語助辭’로 虛詞를 의미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의미하는 품사분류의 하위개념인 語助詞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한자입문서로 널리 사용한 『千字文』에서 ‘焉’, ‘哉’, ‘乎’, ‘也’를 ‘語助’라 하여 虛詞의 여러 종류 가운데 이들을 문법적으

16) 『大漢韓辭典』, 교학사, 1998.

17) 『大漢韓辭典』, 동아출판사, 1998.

로 인식하고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752년 洪聖源이 편찬한 『주해천자문』에서 이를 ‘語助辭’라 명칭하였다.¹⁸⁾ 또 최세진이 편찬한 『老朴集覽』(1517)에도 ‘語助’, ‘語助辭’, ‘助語辭’의 용어가 보이는데,¹⁹⁾ 이와 같은 ‘語助辭’의 용어가 그대로 국어사전, 한한사전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그 개념은 모든 虛詞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語助詞’의 용어를 살펴보자.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語助詞’는 2007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와 그 용어와 개념을 같이하고 있는데, 그 예로 文頭의 ‘夫’, 文中의 ‘者’, 文末의 ‘也’, 그리고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 주어와 서술어 사이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의 ‘之’, ‘수식어+者’ 구조의 ‘者’, ‘所+수식어’ 구조의 ‘所’를 언급하고 있다. 이 예들은 중국에서의 ‘助詞’와 개념범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王力言語學詞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助詞는 (中略) 고대한어 문언문에서 흔히 보는 것으로 結構助詞(예를 들면 “者”, “之”, “所”)와 語氣助詞(예를 들면 “也”, “矣”)가 있다.²⁰⁾

이와 같이 교육과정에서 기술하고 있는 ‘語助詞’는 중국에서 결구조사와 어기조사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결구조사는 구조조사라고도 하는데 명사어구화의 구조관계를 도와주는 것으로 ‘之’, ‘者’, ‘所’를 예로 들고 있으며, 語氣助詞와는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語氣助詞’와 ‘語助詞’, ‘語氣詞’의 명칭개념을 살펴보면, 何樂士·敖鏡浩·王克仲·麥梅翹·王海葵은 『古代漢語虛詞通釋』에서 語助詞와 語氣助詞를 같은 명칭으로 보고 있다.

18) 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it/vcontents/view.php?depth=cont&value=17267>)

19) 정운철, 『『老朴集覽』에 보이는 ‘語助’, ‘語助辭’, ‘助語辭’의 쓰임 연구』, 『중국학연구』 제35집, 중국학연구회, 2006. 참조.

20) 『王力言語學詞典』, 山東教育出版社, 1995. p.715, “助詞 … 古代漢語文言文里, 常見的只有‘結構助詞’(如 ‘者’, ‘之’, ‘所’)和‘語氣助詞’(如 ‘也’, ‘矣’)”

일종의 어기를 표시하거나 강조하는데 주로 쓰이고 모종의 감정색채를 강조하는데 語氣助詞(간략히 語助詞라 칭함)라 한다. 대부분 句首에 위치하고 어떤 때는 서술어의 앞에 위치하여 낭독할 때 성조를 표시한다. 語助詞와 語氣詞의 구별은 語助詞는 대부분 句首(주어전후)에 위치하며, (中略) 語氣詞는 항상 句末에 위치한다.²¹⁾

라 하여 句首와 句中(‘서술어 앞’이라 표현함)에서 어기를 표현하여 강조하는 것을 語氣助詞라 하여 ‘語助詞’가 ‘語氣助詞’의 약칭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고, 句末에서 어기를 표현하는 것을 語氣詞라 하고 있다.

語氣詞의 명칭은 呂叔湘이 『中國文法要略』에서 처음 사용한 명칭으로²²⁾ 何樂士等著와, 廖振佑,²³⁾ 何金松²⁴⁾ 등에서 文末助詞를 語氣詞라 하여 품사를 달리하고 있다. 이들은 語氣助詞에 대해 설명하기를 문장의 첫머리나 가운데에 쓰여 어떠한 어기를 나타내는 조사이며, 語氣詞는 문장 끝에 쓰여 문장에 대하여 표명작용을 하는데 語氣助詞에는 이러한 작용이 없다고 하였다.²⁵⁾

이상으로 살펴보면 文頭나 文中뿐만 아니라, 文末에 쓰이는 조사도 語氣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며, 『王力言語學詞典』에서처럼 文末의 ‘也’, ‘矣’를 語氣助詞라 하기도 하니, 이로보아 語助詞·語氣助詞·語氣詞는 문두, 문중, 문말의 語氣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지만, 이들과 달리 構造助詞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語助詞[語氣助詞]’와 ‘構造助詞’를 명시적으로 서술한 학자는 劉誠·王大年으로 『語法學』에서

21) 何樂士·敖鏡浩·王克仲·麥梅翹·王海榮, 『古代漢語虛詞通釋』, 北京出版社, 1985, p.12.

22) 何金松, 『虛詞歷時詞典』, 湖北人民出版社, 1994.

23) 廖振佑編著, 『古代漢語特殊語法』, 內蒙古人民出版社, 1979, p.182.

24) 何金松, 위의 책.

25) 廖振佑, 위의 책, p.197, “古代漢語語氣助詞是用在句首或句中表示某種語氣的助詞 它跟語氣詞不同 語氣助詞是用在句首或句中 有爲下文作勢或起強調語氣和舒緩語氣的作用 而語氣詞則一般是用在句子的末尾 對句子有標明作用 它表明句子是陳述句還是疑問句或其他什麼類型的句子 而語氣助詞則沒有這種作用”

일반어법서에서는 語氣와 語音を 나타내는 것만을 助詞 혹은 語助詞라고 부른다. 이제 構造 중의 虛構的인 요소 또한 助詞로 간주하기로 한다.²⁶⁾

라 하여 劉誠·王大年은 語助詞와 構造助詞를 명시적으로 구분하면서 이들을 助詞의 범주로 보고 있다. 또 丁聲樹는 『現代漢語語法講話』에서 ‘語助詞’는 어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문장의 말미나 구중의 잠시 멈춤 점에 놓이게 된다면서 현대한어에서 주로 쓰이는 ‘了’, ‘嗎’ 등의 예만 들고 있는 것을 볼 때,²⁷⁾ 語助詞는 構造助詞와는 다른 개념이다. 聶代順도 문두 문중 문말의 어기를 나타내는 것을 語氣助詞로 보고 構造助詞와 구분하여 하나의 ‘助詞’의 큰 범주의 하위분류로 삼고 있으며,²⁸⁾ 앞에 서술한 『王力言語學詞典』에서도 助詞의 하위범주로 語氣助詞와 構造助詞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한문과 학교문법에서 품사의 하위분류의 하나인 ‘語助詞’의 명칭을 제시한 安載澈교수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다수의 어법학자들이 助詞란 명칭을 쓰고 있어,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나 국어 문법에서의 ‘助詞’의 개념과 혼동의 여지도 있고, 漢文에 있어서는 대개가 語氣詞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語氣詞’란 명칭도 괜찮으나, ‘語’자를 ‘助詞’앞에 붙여서 語助詞란 명칭을 쓰고자 한다.²⁹⁾

안재철교수의 ‘語助詞’의 개념은 어법학자들이 助詞라 명칭하는 것으로 우리 국어의 조사와 한문의 명칭이 같지만 그 기능과 의미가 아주 다르고 자리하는 위치에 따라 문장의 앞, 중간, 끝에 쓰이는 語氣助詞와

26) 劉誠·王大年, 『語法學』, 湖南人民出版社, 1985, pp.99-100.

27) 丁聲樹, 『現代漢語語法講話』, 商務印書館, 1979, p.7, “語助詞是表示語氣的, 通常在一句的末了或句中停頓的地方 …” (許璧, 『中國古代語法』, 신아사, 1997, p.364. 재인용.)

28) 聶代順, 『古代漢語語法解釋』, 重慶出版社, 1997, pp.97-105. 참조.

29) 안재철, 앞의 논문, 1996.; 앞의 논문, 2001.

語氣詞의 개념을 ‘語助詞’로 본 것이다.³⁰⁾ 그는 ‘者’와 ‘所’를 (被飾)名詞로 보고 있으며, ‘之’는 (所有)介詞로 보고 있다.³¹⁾ 그래서 우리국어의 조사와 아주 다르다고 하여 ‘語助詞’의 용어를 제시하였으며, 이 ‘語助詞’의 용어는 교육과정에 수용되어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품사의 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한자사전에서 ‘어조사 於’, ‘어조사 而’, ‘어조사 矣’의 ‘語助辭’의 개념과 다르며, ‘之’·‘者’·‘所’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語助詞’의 개념과 안재철교수의 ‘語助詞’와도 다른 개념이다. 즉 한자사전의 ‘語助辭’는 모든 허사를 의미하는 개념이며, 안재철교수의 ‘語助詞’는 ‘之’·‘者’·‘所’를 포함하지 않은 문장에서의 위치에 따른 문두어기사, 문중어기사, 문말어기사의 개념이나, 교육과정의 ‘語助詞’는 문두·문중·문말의 語氣助詞와 ‘之’·‘者’·‘所’의 構造助詞를 포함한 개념이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의 ‘어조사’ 개념 정의에서 기술한 ‘문법적인 의미’는 ‘之’·‘者’·‘所’를 염두에 두고 한 표현으로 생각되며, ‘여기 등을 나타내는 단어’는 ‘여기조사’를 염두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之’·‘者’·‘所’만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모든 허사는 각각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之’·‘者’·‘所’는 ‘의미’보다는 ‘기능’적인 역할이 더 강하다.

그러므로 ‘어조사 於’, ‘어조사 矣’ 등의 한자를 교수·학습할 때 ‘말을 도와주는 단어’ 즉 虛詞의 의미로 설명하면서 문장에서의 풀이를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 학습적으로 이해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품사하위 분류범주의 ‘語助詞’와는 그 개념을 달리함을 인지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之’·‘者’·‘所’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語助詞’에서 ‘之’가 우리 국어의 조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일반언어학적 개념을

30) 안재철, 앞의 논문, 1996.

31) 안재철, 앞의 논문, 1996.

공유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학습자에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助詞’라는 큰 범주를 설정하고 構造助詞와 語氣助詞의 하위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이에 교육과정의 ‘語助詞’를 ‘助詞’라 개칭하고 그 하위분류를 설정하여 ‘之’·‘者’·‘所’를 결구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構造助詞로 분류하고, 문장의 처음 중간 끝에 와서 화자의 정감어기의 의도를 표현하는 ‘夫’, ‘也’, ‘矣’, ‘已’, ‘乎’, ‘哉’ 등을 語氣助詞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Ⅲ. ‘語助詞’의 정의와 문법적 의미범주 고찰³²⁾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정에서의 ‘語助詞’의 개념은 중국에서 構造助詞로 보는 ‘之’·‘者’·‘所’와 문두·문중·문말의 語氣助詞, 語氣詞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필자는 ‘어조사’의 명칭을 ‘조사’로 쓸 것을 제안하였으므로 본장에서는 ‘助詞’의 명칭을 쓰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助詞’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견해를 살펴 학교문법적 차원에서 ‘助詞’의 정의와 문법적 의미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³³⁾

助詞의 개념과 범위를 文末의 語氣詞만을 지칭한 학자와 구조조사와 어기조사, 음절조사 등으로 하위분류한 학자, ‘助詞’와 ‘語氣詞’를 각각의 품사로 분류하여 설정한 학자로 나눌 수 있다.

먼저 馬建忠은 印歐語에는 다양한 형태변화가 있지만 漢文에는 형태변화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인식하여 서양에 없는 ‘助字’라는 품사를 설정하였다.

32) 본 장의 내용은 鄭順泳의 앞의 논문, 2003.을 참조하였음.

33) 우리나라 학자에 대한 ‘어조사’의 명칭과 문법 의미 분류에 대한 연구는 鄭順泳의 「漢文 學校文法の 品詞分類와 名稱」(『漢字漢文教育』 16輯,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pp.108-110.)을 참조하기 바람. 한국학자들의 명칭은 助詞와 語助詞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개념과 문법의미 분류는 중국학자들의 학설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중국학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무릇 虛字로서 實字와 句讀를 묶어 매듭짓는데 사용되는 것을 助字라 한다. (中略) 助字는 漢語에만 있는 것으로 動字의 변화 없는 궁벽함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른바 助字란 대체로 實字를 도와 字句가 가지고 있어야할 情態를 나타낸다. 助字가 전달하는 語氣에는 信과 疑 두 가지가 있다.³⁴⁾

馬建忠은 서양어에서 동사의 형태변화를 인식하면서, 한문의 특유한 助字를 분석해 냈다. 助詞는 動詞의 문법작용과 관련이 있으며, 어구와 문장에 대한 감정태도 작용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며, 助詞와 기타 虛詞의 차이를 위치에 있다고 파악하고, 句讀를 매듭짓는 기능을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조사는 語氣를 나타내는 것으로 傳信과 傳疑의 둘로 나누었다. 그는 문말의 ‘語氣詞’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王力도 助詞를 ‘語氣詞’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어의 어기사가 표현하는 어기는 서양언어의 어기[mood]와 비슷하지만 어법 결구상 크게 같지 않다. 서양언어의 어기는 동사의 형태변화로 표시하는 것이지만 한어의 어기는 구말의 허사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허사가 표시하는 것은 하나의 동사어기가 아니라 문장전체의 어기다.³⁵⁾

王力の 견해는 助詞의 의미기능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서양의 감정표현을 나타내는 것과 비슷하지만 전혀 실제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虛詞로 표현하며, 하나의 語氣詞가 나타내는 의미는

34) 馬建忠·呂叔湘·王海棻 編, 『馬氏文通讀本』, 北京: 上海教育出版社, 1986, p.536, “凡虛字用以結煞實字與句讀者 曰助字 … 所謂助字者 蓋以助實字以達字句應有之神情也 助字所傳之語氣有二 曰信曰疑 故助字有傳信者有傳疑者 二者固不足以概助字之用而大較則然矣”

35) 王力, 『漢語史稿』(『王力文集』 卷9), 山東教育出版社, 1988, p.582, “漢語的語氣詞所表示的語氣雖然近似西洋語言的語氣(mood) 但是在語法結構上却大不相同 西洋語言的語氣是由動詞的形態變化來表示的 漢語的語氣是由句末的虛詞來表示的 這種虛詞所表示的不是一個動詞的語氣 而是全句的語氣 因此我們把語氣詞放在句法裏談”

화자의 표현의도에 따라 선택되는 것으로 문장의 전체적인 언어 환경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크게 陳述語氣詞와 疑問語氣詞로 나누어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있다.³⁶⁾ 또한 楊伯峻은 『中國文言文法』에서

語氣의 정돈, 의문, 놀람 등을 나타내는 사이다.³⁷⁾

語氣詞은 어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中略)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동일한 語氣를 다른 어기사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두 어기사의 어기의 차이는 극히 적다는 것과, 또한 동일한 어기사가 서로 다른 어기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한 어기사가 어떤 語氣를 나타내고 있는지는 반드시 문장의 결구, 어기사 및 문장 중에 있는 기타 성분과의 관계와 위아래 문장의 뜻을 종합하여 살펴봐야 한다.³⁸⁾

楊伯峻도 ‘語氣詞’라 칭하고 전혀 실제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虛詞로, 동일한 어기사라도 그 의미는 단위문장내의 통사기능에 있지 않고, 문과 문이 문맥적으로 연결되는 화자와 청자사이의 담화 체계에서의 전체적인 언어 환경에서 의미기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문법의미를 보다 자세히 분류하여 提示와 停頓을 나타내는 語氣詞, 終結과 確認을 나타내는 語氣詞, 已然을 나타내는 語氣詞, 制限을 나타내는 語氣詞, 疑問을 나타내는 語氣詞, 感歎을 나타내는 語氣詞, 語氣詞의 連用으로 나누었다.³⁹⁾ 黃六平은 『漢語文言語法綱要』에서 ‘助詞’라 칭하고 위치에 따라 三分法으로 분류한 陳承澤⁴⁰⁾을 따라 語首助詞·語中助詞·語末助詞로 구분하고 다시

36) 王力, 앞의 책, 1988, p.582. 참조.

37) 楊伯峻 지음·윤화중 옮김, 『중국문언문법』, 청년사, 1989, p.22. 참조.

38) 楊伯峻 지음·윤화중 옮김, 위의 책, p.155. 참조.

39) 楊伯峻 지음·윤화중 옮김, 위의 책, p.155. 참조.

40) 陳承澤, 『國文法草創』, 商務印書館, 1982, pp.54-62.

조사를 指示나 敘述에만 전용되는 조사와 敘述과 指示에 사용되지만 어느

의미에 따라 語末조사를 陳述, 疑問, 提頓, 祈使와 感歎으로 구분하고 있다.⁴¹⁾ 劉景農⁴²⁾은 『漢語文言語法』에서 ‘語氣詞’라 칭하고 陳述語氣詞, 疑問語氣詞, 提頓語氣詞, 祈使 感歎語氣詞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助詞를 語氣詞, 語氣助詞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助詞를 하위분류하여 語氣助詞와 構造助詞, 音節助詞 등으로 나누는 경우다. 劉誠·王大年是 『語法學』에서

助詞는 어구를 이루는데 보조적인 재료가 되는 詞類다. 그것은 일종의 특수한 허사로서 언제나 다른 詞, 詞組 또는 句子에 부가되어 여러 가지 어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句子의 성분에 충당되지 못한다. 일반어법서에서는 語氣와 語音を 나타내는 것만을 助詞 혹은 語助詞라고 부른다. 이제 構造 중의 虛構의인 요소 또한 助詞로 간주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그것도 똑같이 보조적인 재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助詞는 범위가 비교적 넓다. 따라서 그것의 기능 또한 비교적 많다. 총괄하면 그것은 語氣를 나타내고 語音を 나타내며 構造를 나타내는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⁴³⁾

라고 하여, ‘助詞’라 명칭하고 이를 기능에 따라 語氣助詞와 襯音助詞 외에 構造助詞를 포함하고 있다.⁴⁴⁾ 語氣助詞는 句子의 여러 가지 다른

정도 감정색채를 띠고 있는 조사로 분류할 수 있으며, 편의상 조사가 놓이는 위치에 따라 語末助詞, 語首助詞, 語間助詞로 나누었다.

- 41)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華正書局有限公司, 民國70, p.188, “助詞是表示言語情態的一種語詞 漢語的助詞有用在語首 語中 語末等形式 自語法學前輩陳承澤先生首創這種三分法以來 對漢語助詞的分類很有些影響力”
- 42) 劉景農, 『漢語文言語法』, 中華書局, 1994. pp.90-91, “語氣詞 是用來表示說話的各種語氣詞 … 語氣詞的用途雖然有許多 但扼要說來 可分爲三種 …”
- 43) 劉誠·王大年, 앞의 책, pp.99-100, “助詞是一種作爲造成詞句的輔助材料的詞類 它是一種特殊的虛詞 經常附着在別的詞 詞組 句子上面表示各種語法意義 一般不充當句子成分 一般語法書只把表示語氣和語音的叫做助詞或語助詞 現在我們把結構中的虛素也算做助詞 因爲它同樣是一種輔助材料 我們所說的助詞 範圍較廣 因而它的功用也較多 概括說來 它具有表語氣 表語音 表結構三種功用”
- 44) 劉誠·王大年, 앞의 책, p.105.

여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며, 위치에 따라 句首語氣助詞, 句中語氣助詞, 句尾語氣助詞로 분류하고 있으며, 襯音助詞는 句子에서 단지 音節을 부각시킬 뿐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며, 句首와 句中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構造助詞를 조사의 하위범주에 포함하여 名詞性詞組 혹은 偏正構造에 쓰인다고 하며 조사는 범위가 넓고 기능 또한 많다고 하였다. 襯音助詞는 명칭만 다를 뿐 音節助詞와 같다고 할 수 있다. 楊伯峻·何樂士는 『古漢語語法及其發展』에서

助詞는 詞나 詞組 혹은 문장에 대하여 각종 標識作用을 하는 詞類이다. 助詞의 독립성은 가장 부족하고 의미는 가장 비실재적이며, 흔히 句首나 詞의 앞이나 뒤 혹은 詞組가운데 쓰인다. 句 안에서 某種의 語氣를 표시하며, 音節을 조절하며, 詞序를 변환하며, 時態 혹은 被動을 표시한다.⁴⁵⁾

라 하여 ‘助詞’라 명칭하고 조사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조사를 그 작용에 따라 語助詞, 重言助詞, 構造助詞, 語綴助詞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易孟醇은 『先秦語法』에서 助詞를 기능에 따라 音節助詞, 構造助詞, 語氣助詞의 3가지로 하위분류하고 있으며,⁴⁶⁾ 聶代順은 『古代漢語語法解釋』에서 助詞를 크게 結構助詞와 語氣助詞로 하위분류하고, 語氣助詞는 다시 위치에 따라 句首, 句中, 句末語氣助詞로 나누고 있다.⁴⁷⁾ 그는 ‘助詞’라 명칭하고 助詞는 허사의 하나로 실제적인 의미가 없으며, 단지 문장을 이루는데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며 結構助詞와 語氣助詞의 두 종류로 나누었다. 그리고 결구조사는 문장의 구조를 완성하는 것으로 결구조사를 써서 문장의 결구를 식별할 수 있고

45)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1992, p.474, “助詞是對詞 短語或句子起各種標識作用的詞類 助詞的獨立性最差 意義最不實在 常用於句首 詞的首尾 或短語之中 在句的範圍內 一 標志某種語氣 二 協調音節 三 變換詞序 四 標志時態或被動”

46) 易孟醇, 『先秦語法』, 湖南教育出版社, 1989, pp.382-384, “先秦助詞的功能有三 足音節 助結構 達神情”

47) 聶代順, 앞의 책, pp97-105. 참조.

모종의 문장의 성분을 나타낸다고 하며, ‘之’, ‘者’ 와 부사와 서술어 사이의 ‘以’와 ‘而’를 예로 들고 있다. 어기조사는 위치에 따라 句首어기사, 句中어기사, 句末어기사로 나누고, 句首어기사는 해석하지 않거나 의론을 나타내거나 하며, 句中어기사는 정돈의 어기를 나타내며, 句末어기조사는 서술, 긍정 혹은 부정의 판단, 의문, 감탄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⁴⁸⁾

다음으로 助詞와 語氣詞를 각각 독립품사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何樂士·敖鏡浩·王克仲·麥梅翹·王海棻은 『古代漢語虛詞通釋』에서

助詞는 모두 약 34개로 문장의 앞·뒤 혹은 構造의 가운데 쓰인다. 助詞는 독립성이 가장 떨어지는데, 그 자신의 구체적인 의미가 그다지 분명하지 않으며, 주로 일종의 語氣나 상태를 표시하거나 강조하며, 重言임을 나타내거나, 品詞를 區別하거나, 某種의 構造를 바꾸거나 만드는데 쓰인다. (中略) 語氣詞는 句나 문장말에 많이 쓰이며 上下의 문장에 호응하여 肯定, 疑問, 反問, 驚訝, 感歎 등의 각종어기를 표시한다. 대체로 모두 명확한 감정색채를 띠고 있다.⁴⁹⁾

何樂士等著는 ‘助詞’와 ‘語氣詞’라 명칭하고 각각을 품사차원에서 분류하고 있다. 助詞의 분류가 상당히 많고 文末에 쓰이는 것을 語氣詞로 보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之’·‘者’·‘所’를 결구 속에 쓰여 어순을 전환하거나 결구의 성질을 바꾸는 結構助詞로 설명하고 있다.⁵⁰⁾ 廖振佑도

48) 聶代順, 앞의 책, pp.97-105, “助詞是虛詞之一 它沒有實際意義 只有幫助造句的功能 下邊 談談結構助詞和語氣助詞兩種 …”

49) 何樂士·敖鏡浩·王克仲·麥梅翹·王海棻, 앞의 책, pp.12-15, “助詞 共約34個 用于句首詞的首尾或結構之中助詞獨立性最差 本身具體含義不大明顯 主要用于表示或強調一種語氣狀態標志重言區別詞性變換或組成某種結構等 … 語氣詞 多用于單句或分句之末配合上下文表示肯定疑問反詰驚訝感嘆等各種語氣 大都有着明顯的感情色彩”

50) 何樂士·敖鏡浩·王克仲·麥梅翹·王海棻, 앞의 책, p.13, “位于結構之中, 用以變換詞序或改變結構的性質. 也可以叫做結構助詞. 共約8個: 之 是 所 者 …”

『古代漢語特殊語法』에서

助詞는 다른 단어·구 또는 문장에 붙어서 어떤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거나 어기 또는 음절을 나타내는 허사이다. 조사는 또 結構助詞, 語氣助詞, 語音助詞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⁵¹⁾

語氣詞는 문장의 어기를 표시하여 왔다. 어떤 語法書에는 語末助詞라고 한다. 현대한어에서 문장의 다른 어기는 어기사와 문장부호의 도움을 빌어 표현할 수 있지만, 고대한어의 경우 문장의 서로 다른 어기는 통상 다른 어기사를 써서 표현해야 하였다. 따라서 고대한어의 어기사는 종종 문장에 대해 표명작용을 하므로 어기사를 쓰면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문장인지를 판명하도록 한다.⁵²⁾

寥振佑도 ‘助詞’와 ‘語氣詞’를 각각 품사로 분리하고 있으며, 助詞는 다시 結構助詞, 語氣助詞, 語音助詞로 분류하였으며,⁵³⁾ 단어나 구 문장에 붙어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語氣助詞라 하고 조사의 하위분류로 삼고, 문장말의 쓰여 어기의 표명작용을 하는 것을 語氣詞라 하여 따로 품사로 구분하고 있다. 語氣詞는 陳述語氣詞, 停頓語氣詞, 疑問語氣詞, 反問語氣詞, 測度語氣詞, 祈使語氣詞, 感歎語氣詞, 語氣詞의 連用으로 분류하고 있다.⁵⁴⁾ 이상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51) 寥振佑編著, 앞의 책, p.182, “助詞是附着在別的詞 詞組或句子上邊 表示某種語法意義以及表示某種語氣或音節的虛詞 助詞又可分爲結構助詞 語氣助詞和語音助詞三種”
- 52) 寥振佑編著, 앞의 책, p.204, “語氣詞是用來表示句子的語氣的詞 有的語法書把它叫做語末助詞 在現代漢語里 句子的不同語氣 可以借助于語氣詞和標點符號來表達 而在古代漢語里 句子的不同語氣 則常常需要用不同的語氣詞來表達 所以古代漢語語氣詞往往對句子有表明作用 用了語氣詞可以供我們判明它是一個什麼樣的句子”
- 53) 寥振佑編著, 앞의 책, p.182, “助詞是附着在別的詞 詞組或句子上邊 表示某種語法意義以及表示某種語氣或音節的虛詞 助詞又可分爲結構助詞 語氣助詞和語音助詞三種”
- 54) 寥振佑編著, 앞의 책, p.204.

楊伯峻 (1982) ⁵⁵⁾	寥振佑 (1979) ⁵⁶⁾	王力 (1984) ⁵⁷⁾	劉誠·王大年 (1985) ⁵⁸⁾	周秉鈞 (1978) ⁵⁹⁾	易孟醇 (1989)
<語氣詞> 제시정돈 종결궁정 已然 한정 의문 감탄 연용 <소품사> 之者所등	<助詞> 결구조사 (之者所) 어기조사 어음조사 <語氣詞> 진술 정돈 의문 반어 측도 기사 감탄 연용	<語氣詞> 결정 표명 과장 의문 反詰 가설 揣測 祈使 催促 忍受 不平 論理	<助詞> 어기조사 -구수 -구중 -구말 진술 의문 감탄 襯音조사 결구조사	<助詞> 어기조사 진술 의문반문 提頓 測度商量 감탄 기사금지 襯音조사 결구조사	<助詞> 음절조사 결구조사 어기조사 -진술 -의문반힐 -감탄 -기사 -제기정돈
劉景農 (1994) ⁶⁰⁾	楊伯峻·何樂士 (1992) ⁶¹⁾		黃六平 (1978) ⁶²⁾	何樂士 等 (1985) ⁶³⁾	聶代順 ⁶⁴⁾
<語氣詞> 진술 의문 제돈 祈使 測度 감탄	<助詞> 語조사 重言조사 結構조사 語綴조사		<助詞> 語首 語中 語末 -진술 -의문 -제돈 -祈使 -감탄	<助詞> 之者所 <語氣詞> 肯定 疑問 反詰 驚訝 感歎	<助詞> 結構조사 之者등 語氣조사 -구수 무의미 의논 -구중 停頓 -구말 서술 판단 의문 감탄 반문 연용

55) 楊伯峻, 『文言文法』, 香港: 中華書局香港分局, 1978, p.131.

56) 寥振佑編著, 앞의 책, pp.182-222.

57) 王力, 『王力文集』 卷1, 山東教育出版社, 1984, p.216.

이상으로 살펴 본 결과, ‘助詞’는 介詞나 接續詞와는 달리 그 명칭과 개념이 분분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之’, ‘者’, ‘所’의 문법기능과 ‘夫’, ‘者’, ‘也’, ‘矣’, ‘已’, ‘乎’, ‘哉’ 등의 문법기능이 너무 다르다. 따라서 聶代順의 ‘助詞’의 개념과 분류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예시와 부합하다고 생각되어 ‘助詞’를 ‘構造助詞’와 ‘語氣助詞’로 하위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어기조사의 의미분류에서는 어기조사의 위치에 따라 명칭이 구수어기조사, 구중어기조사, 구말어기조사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익숙한 문두어기조사, 문중어기조사, 문말어기조사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문두에 쓰인 조사의 문법의미는 ‘무의미’나 ‘발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학자들이 보았는데, 되도록 2007개정 교육과정에 기술된 ‘발어’의 의미를 쓰는 것이 좋을 듯하며, 문중에 쓰인 조사에 대하여는 ‘제시’나 ‘정돈(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따르고자 하며, 문말에 쓰인 조사에 대하여는 ‘단정’보다는 ‘진술’의 표현이 많아 ‘진술’의 표현을 따르고자 한다. 추측이나 단정 등의 의미는 진술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세부분류는 생략하고자 한다. 구조조사는 劉誠·王大年과 聶代順의 견해를 따라 名詞性詞組 혹은 偏正構造를 이루어 문장성분에 충당하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아울러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에 쓰이는 ‘之’의 어순 변화의 기능 등은 결국 구조조사가 하나의 결구를 이루어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자들이 음절조사를 조사의 하위분류로 삼았는데, 학교문법에서는 너무 어려운 분석이 되므로 생략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

-
- 58) 劉誠·王大年, 앞의 책, pp.99-109.
 - 59) 周秉鈞, 『古漢語綱要』, 湖南人民出版社, 1978, pp.394-404.
 - 60) 劉景農, 앞의 책, p.91.
 - 61) 楊伯峻·何樂士, 앞의 책, p.474.
 - 62) 黃六平, 앞의 책, p.190.
 - 63) 何樂士·敖鏡浩·王克仲·麥梅翹·王海棻, 앞의 책, pp.12-15.
 - 64) 聶代順, 앞의 책, pp.97-105.

이 학교문법적 측면에서 ‘助詞’에 대한 정의와 문법적 의미 범주를 설정하고자 한다.

‘助詞’는 단독으로 문장성분을 이룰 수 없고, 단지 단어나 어구 또는 문장의 앞, 가운데나 뒤에 결합하여 어구를 구성하는데 관여하거나 語氣[mood, 심정]의 표현 의도를 나타낸다. 어구를 구성하는 構造助詞는 명사어구화 기능으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며, 語氣助詞는 발어, 제시·정돈, 진술, 의문, 감탄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虛詞 중 독립된 品詞라 할 수 있다. 학교문법에 제시된 문법용어라도 교수·학습적 측면에서의 실현은 어려운 문법용어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한문문법 효용성은 독해의 용이성에 있으며, 용어개념을 교수·학습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문법성분인 虛詞에 대한 음·뜻 제시 방법은 ‘말을 도와주는 단어’라는 의미로 지금 사전에 통용되고 있는 기존의 ‘어조사’를 써서 개사 ‘於’, 어기조사 ‘矣’, 접속사 ‘而’ 등의 허사를 ‘어조사 어, ~보다, 비교의 대상을 나타냄’, ‘어조사 의, ~이다, 진술의 의미를 나타냄’, ‘어조사 이, 그러나, 역접의 의미를 나타냄’과 같은 서술방법을 쓸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제안은 기존의 ‘말을 도와주는 단어’로 모든 虛詞를 지칭하던 ‘어조사’의 의미를 폐기하는 것보다는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어조사’를 ‘조사’로 개칭하는 것이 학습에 더 효과적이고 혼란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개별 허사에 대한 학습면에서도 어려운 품사구분을 할 필요 없이 허사의 개념인 ‘어조사’로 제시하는 것이 교수·학습적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IV. 결론 및 제언

2009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기술된 ‘어조사’에 대한 서술의 실현양상은 ‘개사’에 비하여 정의와 문법적 의미가 명시적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어조사’에 대한 명칭과 개념을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고찰하여 학교문

법적 측면에서 ‘어조사’에 대한 정의와 문법적 의미범주를 제안하였다.

먼저 교육과정에서 품사의 하위범주인 ‘어조사(語助詞)’의 명칭은 모든 ‘虛詞’를 아우르는 ‘어조사(語助辭)’와 명칭은 같으나 그 개념이 다르다. 또한 중국에서의 ‘語助詞’는 ‘語氣助詞’의 약칭으로, 문두, 문중, 문말에 쓰이는 ‘語氣助詞’나 ‘語氣詞’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之’, ‘者’, ‘所’의 ‘構造助詞’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의 ‘語助詞’는 중국에서 ‘語氣助詞’와 ‘構造助詞’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두 개념을 아우를 수 있는 ‘助詞’의 용어를 쓸 것을 제안하며, ‘助詞’를 語氣助詞와 構造助詞로 하위분류하고자 한다. 이러한 용어와 개념이 학교 문법에서 어려울 수 있으나 한문과 학교문법 규정의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助詞’의 정의와 문법적 의미범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助詞’는 단독으로 문장성분을 이룰 수 없고, 단지 단어나 어구 또는 문장의 앞, 가운데나 뒤에 결합하여 어구를 구성하는데 관여하거나 語氣[mood, 심정]의 표현 의도를 나타낸다. 어구를 구성하는 構造助詞는 명사어구화 기능으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며, 語氣助詞는 발어, 제시·정돈, 진술, 의문, 감탄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虛詞 중 독립된 品詞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규정에 따른 교수·학습적 측면에서의 서술방법 문제다. 한문과 학교문법에 제시된 문법용어라도 교수·학습적 측면에서의 실현은 어려운 문법용어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문법용어개념을 교수·학습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에 쓰인 개별허사의 음·뜻 제시 방법을 예로 들면, ‘以’는 ‘어조사 이, ~로써, 도구의 의미를 나타냄’과 같은 서술방법을 제안한다. 한문문법 효용의 궁극적 목적은 독해의 용이성에 있으므로 문법성분인 虛詞의 음·뜻 제시 방법은 품사용어 제시보다는 ‘말을 도와주는 단어’라는 의미로 기존의 허사개념인 ‘어조사’를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기조사 ‘矣’, 접속사 ‘而’ 등도 ‘어조사 의, ~이다, 진술의 의미를 나타냄’, ‘어조사 이, 그

러나, 역접의 의미를 나타냄'과 같이 제시하면 지금 한자사전에 통용되고 있는 방법이므로 혼란도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제언은 기존의 '말을 도와주는 단어'의 의미인 모든 虛詞를 지칭하던 '어조사'의 의미를 폐기하는 것보다는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어조사'를 '조사'로 개칭하는 것이 학습에 더 효과적이고 혼란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개별 허사에 대한 학습면에서도 어려운 품사 구분을 할 필요 없이 허사의 개념인 '어조사'로 제시하는 것이 교수·학습적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參考 文獻>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1.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7], 교육부, 2015.
-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편, 『국어대사전』, 금성, 1991.
- 남광우·이응백·이을환, 『한국어대사전』, 玄文社, 1976.
- 李達文 編, 『우리말 뿌리사전』.
-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2005.
- 한글학회 지음, 『우리말 큰 사전』, 어문각, 1992.
- 『大漢韓辭典』, 교학사, 1998.
- 『大漢韓辭典』, 동아출판사, 1998.
- 金榮九, 『虛詞의 概念的 性格과 그 範圍 - 近代 品詞論을 중심으로』, 『中語 中文學』 第8輯, 한국중어중문학회, 1986.
- 安載澈, 「漢文 教育에 있어서 品詞 分類 및 用語 問題」, 『漢文教育研究』 제 1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6.
- , 「學校 漢文文法의 品詞 分類와 그 內容에 관한 研究」, 『漢文教育研究』 제17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1.
- , 「韓國漢文文法研究史」, 『漢字漢文教育』 16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 楊伯峻 지음·윤화중 옮김, 『중국문언문법』, 청년사, 1989.
- 鄭順泳, 「『三國遺事』의 虛詞 研究」, 성신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 「漢文 學校文法의 品詞分類와 名稱」, 『漢字漢文教育』 16輯,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 , 「중학교 한문과 “한문지식영역”에서 한문문법의 문제 - 빈어와 보어의 설정문제」, 『漢文教育研究』 第31號,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 정운철, 「『老朴集覽』에 보이는 ‘語助’, ‘語助辭’, ‘助語辭’의 쓰임 연구」, 『중국학연구』 제35집, 중국학연구회, 2006.

- 馬建忠·呂叔湘·王海棻 編,『馬氏文通讀本』,北京:上海教育出版社,1986.
- 聶代順,『古代漢語語法解釋』,重慶出版社,1997.
- 楊伯峻,『文言文法』,香港:中華書局香港分局,1978.
- 楊伯峻·何樂士,『古漢語語法及其發展』,語文出版社,1992.
- 易孟醇,『先秦語法』,湖南教育出版社,1989.
- 王力 主編,『古代漢語』上冊,1962.
- ,『王力文集』卷1,山東教育出版社,1984.
- ,『王力文集』卷9,山東教育出版社,1988.
- 『王力言語學詞典』,山東教育出版社,1995.
- 寥振佑編著,『古代漢語特殊語法』,內蒙古人民出版社,1979.
- 劉景農,『漢語文言語法』,中華書局,1994.
- 劉誠·王大年,『語法學』,湖南人民出版社,1985.
- 丁聲樹,『現代漢語語法講話』,商務印書館,1979.
- 周秉鈞,『古漢語綱要』,湖南人民出版社,1978.
- 陳承澤,『國文法草創』,商務印書館,1982.
- 何金松,『虛詞歷時詞典』,湖北人民出版社,1994.
- 何樂士·敖鏡浩·王克仲·麥梅翹·王海棻,『古代漢語虛詞通釋』,北京出版社,1985.
- 黃六平,『漢語文言語法綱要』,華正書局有限公司,民國70.

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jt/vcontents/view.php?depth=cont&value=17267>)

Abstract

*A study on definition and category of the grammatical meaning for the emotional particles - Centered on textbook by The Educational Curriculum Revision in 2009 / Jung Soon Young**

This paper is a study on establishing of concept for ‘The Emotional Particles’ of ‘The Parts of Classical Chinese Knowledge’ in textbook by The Educational Curriculum Revision in 2009. Descriptive aspects for the emotional particles is not specify according to the its textbook comparing to the preposition. Therefore, considering the views of many scholars to research suggests that a set category of the grammatical meaning of the survey for the emotional particles in terms of the school as follows;

The emotional particles is configurable a single sentence component, just position in front, center and back represent structive relation. Its particles is a independent parts of speech of the function words meaning of suggestion, statement, question, admiration, etc.

【Key words】 emotional particles, category of the grammatical meaning, meaning category, grammatical meaning, transformation of noun phrase

투고일 : 11월 11일, 심사일 : 11월 23일, 게재확정일 : 12월 12일

* Lecturer of Chungnam National Univ. / 7743jsy@hanmail.net